

2017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계룡산의 퇴적된 맛과 멋을 홍보하라

2017. 8. 23

이준홍, 이해원, 이영진, 이재문

지도교사 : 김민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 계룡산의 퇴적된 맛과 멋을 홍보하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610 이준홍, 1611 이해원

2610 이영진, 2611 이재문

## 1. 탐사의 필요성(합초롱 13)

### 가. 계룡산 전통음식의 우수성

계룡시는 이름을 얻은 지 1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맛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도읍을 정하기 전, 천하의 길지로 손꼽으며 1년간 대궐공사가 펼쳐졌던 계룡산의 남쪽 끝, 신도안에서 말이다.

당시 공사에 동원된 인부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이 바로 팔죽이었다. 이 때문에 신도안의 두마면 두계리는 '팔 거리'라 불리며 팔과 녹두 요리로 상당히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후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신도안에서 가장 큰 생계수단이 되어 준 것은 바로 갯엿이었다. 신도안의 갯엿은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계룡의 밥상은 과거와 현재를 오롯이 품고 있는데 그 시간 덕분에, 팔죽과 팔 칼국수, 물엿족발 등 계룡의 밥상은 더욱더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이번 인문자연탐사의 목표는 계룡산의 맛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고 계룡산 식문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 경관의 우수성은 알지만 전통 식문화에 대한 홍보는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계룡산에서 재배된 팔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느 점이 우수한지, 음식에는 어떠한 문화가 숨어 있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때는 인문적으로 접근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전통 식문화를 전파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 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조선건국의 숨겨진 이야기

신도안으로 도읍을 정하려던 이성계로 인하여 계룡산에는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고려를 무너뜨린 이성계는 새로운 도읍으로 신도안을 선택하고 궁궐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자신은 계룡산의 사연봉에 올라가 제단을 차려 놓고 기도를 하였다. 기도를 하던 곳은 기도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반년쯤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공사를 계속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니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다. 계룡산 할머니는 계룡산의 정기를 타고 정도령이라는 신인이 나타나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800년간 다스릴 것이니 이성계는 500리 북쪽으로 올라가 도읍을 정하라고 하였다. 이성계는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그때 일꾼들이 신에 묻었던 흙을 털었는데 그 흙이 모여 신텔봉이 되었다.'는 설화이다.

## 2. 탐사 과정

### 가. 8/21-녹두 삼계탕 시식 및 동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

#### 1) 녹두 삼계탕 시식

녹두 삼계탕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향한 곳은 계룡의 ‘오거리 회관’이었다. ‘오거리 회관’을 선택한 이유는 식당의 주인이 직접 키우는 닭과 오리를 이용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계룡산 인근에서 나는 녹두역시 유명한 식품이었기 때문이다. ‘오거리 회관’은 계룡시 염사면 염화동길 25에 위치하여 있다. 일반적인 삼계탕과 달리 녹두 삼계탕은 몸에 좋은 여러 효과를 가진다. 계룡산 인근에서 나는 녹두는 조선시대에 마을 전체가 팔을 간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두마의 유례에서 알수 있듯이 팔이 유명해지면서 녹두또한 이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점을 느끼면서 녹두 삼계탕을 시식해 보았다.

#### 2) 동영상 촬영

‘오거리 회관’에서 우리는 왕과 신화들이 녹두 삼계탕을 먹으면서 녹두의 효능에 칭찬하는 내용의 대화를 넣었다. 계룡산 인근에 난 녹두는 기존의 녹두에 비해 훨씬 우수한 효능을 낸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다.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신하들이 왕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자 흡족해하며 자신들이 여기에 왔음을 기록에 세겼다. 후에 이 장면을 미래의 아이들이 찾게 촬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계룡산의 풍경이 잘 보이는 제로 가서 이성계가 계룡산의 풍경을 보며 흡족해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 장면을 촬영할때에는 계룡산이 배산임수와 부부정배라는 풍수지리학적 이점을 중점으로 촬영하였다.

### 나. 8/22-팔죽 시식 및 동영상 촬영, 감사 방문 및 동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

계룡산 주위에 있는 팔거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음식점으로 향하였다. 두마면 두계리는 계룡의 중심지였다. 면사무소, 지소, 우체국이 있었고, 5일마다 두계장이 열렸다. 원래는 소국밥집였다 순대족발집하다가 다방도 했던 곳에, 지금은 ‘콩쥐팍쥐’라는 음식점이 하나 서 있다. 계룡시청쪽에서 계룡역으로 진입하면 ‘팔죽다리’를 건넜다. 계룡역에는 커다란 돌에 팔죽거리 이야기가 길게 적혀 있다. 계룡역 맞은 편에는 ‘팔죽이야기’ 간판이 보이면서 팔죽리다운 분위기가 짙어진다.

좀 지나면서 두마초등학교를 지나면, 자그만 두계장옥미술관이 서 있는 두계장터이다. 3·1만세운동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시장터 변화가 두계 장터에는 매년 4월 1일 만세운동이 재현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350명의 점심메뉴는 계룡의 3대 음식 중 하나인 팔죽이다. 예부터 계룡의 삼미는 신도안 엿, 신도안 냉면, 신도안 팔죽이 있

다.

팔죽이야기는 조선초 개국당시로 올라간다. 조선 태조가 신도안에 도읍 조성시 인부들이 팔죽을 많이 먹었다는 고사가 있다. 팔죽을 쑤려면 곱게 갈아야 하는데 수많은 인부가 먹을 팔죽을 쑤려면 마을 전체가 맷돌로 팔을 갈다보니 팔 가는 고을, 즉 두마라는 명칭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거리이름도 팔거리이며, 아랫장터와 연결되어 있는 지하도의 벽화도 온통 팔죽거리였다. 그렇지만 먹거리타운처럼 팔죽집이 즐비한 게 아니다. 콩쥐팍쥐집이 유일한 팔죽집이다. 그리고 이 팔죽 집 ‘콩쥐팍쥐’에서 시식을 하였다.

### 1) 팔죽 시식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역사를 지닌 두마면 두거리의 ‘팔 거리’에 직접 다녀와 팔과 관련된 여러 음식을 체험해봤다. 팔죽과 팔 칼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 보았다. 또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팔 거리’의 전통성과 우수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보았다. 특히 우리가 방문하였던 팔죽 전문 음식점인 ‘콩쥐팍쥐’는 팔거리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리의 유일한 팍집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맛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인정받아 ‘미더유’ 인증업체로서 인증받았다, ‘미더유’ 인증의 기준 중 하나인 지역농산물은 60% 이상 써야 한다.

팍은 콩 중에서 제일 늦게 수확하고, 제일 먼저 상하기 때문에 구매가 최대 관건이다. 콩쥐팍쥐의 경우 로컬푸드를 100%를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콩이 바로 계룡산 인근의 팔거리에서 난 팍이다. 이런 좋은 팍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아주 깊은 팍의 맛을 잘 느낄수 있었다.

### 2) 갑사 방문

갑사(甲寺)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계룡산 서쪽 기슭에 있는 절이다. 신라 24대 진흥왕 17년(556년)에 혜명대사가 중건하였다. 그 뒤에 의상이 도량을 설치하고 법당을 증수하여 그 규모가 커졌다. 경내에는 대적전, 부도, 철당간지주 등의 보물과 군자대, 용문폭 등의 비경이 있다. 동구의 울창한 숲길은 여름에도 서늘한 감을 주며 계곡 사이로 펼쳐지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며, 사보로는 천근 범종과 《월인천강지곡》 목각판 등이 있다.

백제 이래 풍한 불교문화의 본산이 되어왔던 계룡산의 여러 사찰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천년고찰로서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갑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찰로 발전한 것은 백제 멸망 후의 통일신라기의 일이었다. 위덕왕 3년(556) 혜명대사가 천불전 및 진광명전, 대광명전을 중건하였고 후에 신라의 의상대사는 당 우 천여 칸을 증수하고 화엄대학지소를 창건하여 화엄종의 도량이 됨으로써 화엄종 10대 사찰의 하나로 번창하였다. 임진왜란 때는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왜군에 항거하는 승병궐기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갑사는 조선 선조 30년(1579) 정유재란 시 침입한 왜구들에 의하여 한꺼번에 소실되어 선조 37년(1604) 대웅전과 진해당 중건을 시작으로 재건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갑사를 방문하여 계룡산의 정기를 느끼며 갑사를 보았고, 천도문제로 고민하는 이성계의 모습을 담아 내었다.

### 3) 동영상 촬영

팔죽 식당인 ‘콩쥐팍쥐’에서는 신하가 인부들을 끌고 팔죽을 먹인다음에, 팔죽을 먹는 백성들을 왕이 치하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식사후에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가 갖는 특이한 점과 계룡팔의 장점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팔죽교에 있는 바위에서는 이 바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녹두 삼계탕 집에 남겨놓았던 메모를 발견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갑사에서는 백성들이 서로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싸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담아내고 왕이 등장하였을때 서로가 왕앞에서 의견을 내세우는 장면을 찍었다. 이 부분을 촬영할 때는 신하들의 갈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영상에 재미를 주는 장면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였다.

### 다. 8/23- 동영상 편집, 보고서 작성, 포스터 작성 및 발표준비

이틀동안 찍었던 동영상들과 인터뷰와 검색등으로 알아낸 지식을 정리하며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활동을 하면서 단기간에 많이 알았던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남들앞에서 발표할수 있을 수준으로 준비함으로 완전히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냈다.

#### 1) 동영상 편집

이틀동안 촬영했던 동영상을 편집하는 활동을 하였다. 동영상 길이가 짧지 않고 전문적으로 동영상 편집을 배우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소모 되었다. 특히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2) 보고서 작성, 포스터 작성 및 발표준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발표할 준비를 하기위해 포스터와 보고서등 발표를 도울 결과물들을 제작하였다. 포스터의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과 조원들이 움직인 자취와 각 장면별 촬영결과를 위주로 만들었다, 보고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겪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리는데에 중점을 두고 제작이 되었다.

## 3. 탐구 결과

장면 1)



<이성계가 신하들과 천도문제로 서로의견을 나누고 있는 장면>

장면 2)



<이성계가 신하 권중화와 계룡산으로의 천도를 고민하는 장면>

장면 3)



<신하들이 팔을 먹으며 힘을 내어 일을 하는 장면>

장면 4)



<팔거리에서 난 녹두로 만든 삼계탕을 신하들과 먹는 장면>



장면 5)



<여러 먹거리와 깊은 역사가 있는 계룡으로!>



<팔죽 집 '콩쥐팍쥐' 사장님과의 인터뷰>



#### 4. 결론 및 제언

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역사적 진실을 깨달았다. 조선 최초의 국도는 한양이 아니라 신도안이었던 것이다. 신도안은 개국 이듬해인 1393년 1월 태조 이성계의 태실 찾기를 주 소임으로 했던 권중화에 의해 「계룡산 도읍지도」가 현상된 이후 다음달 13일에 조선의 신수도로 정해져 도읍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대궐터 자리의 주춧돌(115개)이나 신도안을 둘러싸고 있는 계룡산 줄기의 성문터, 신털이봉이나 괴목정과 관련된 전설 등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후 일 년 남짓 진행된 도읍역사는 같은 해 12월 당시 경기좌우도 관찰사였던 하륜의 상소에 의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전해져 오는 계룡산 신도안이 도읍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의 한반도와 유사한 영역을 갖게 된 조선의 영토를 생각할 때 국도로서의 신도안 입지가 중앙부가 아닌 남쪽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풍수상 호순신의 이론에 근거해 신도안의 명당수를 살펴보니, 그 나가는 물길의 방위가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1년도 안된 시간에 한양으로 천도한데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의도된 결과라는 것이다. 혹시 태조를 중심으로 하는 천도세력과 신도안 도읍불가를 상소한 하륜 간에 어떤 커다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당시 젊은 관료였던 하륜이 정세분석에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여 태조의 천도계획 전반을 꿰뚫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개경도 아니고, 신도안도 아닌 ‘제 3의 장소’로의 천도계획 말이다. 이런 추측은 신도안 국도 결정 이후 보여지는 태조의 신도안에 대한 관심이나 도읍역사의 진척 사항, 그리고 하륜의 상소 이후 진행되는 호순신 풍수이론의 검증 과정 등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계룡산 도읍지도가 현상될 당시 태조의 신도안 행차과정은 당장에라도 개경을 떠나 신도안에 옮길 것처럼 급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도안이 결정됨으로써 개경으로부터의 천도가 기정사실화된 이후 태조의 신도안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소홀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심지어 도읍역사에 참여한 백성들이나 공장을 돌려보내고 11월 들어서서는 오히려 노는 중들을 도읍역사에 투입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태조의 무관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지만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태조가 잠시 신도안을 건설하는 도중에 인부들에게 제공할 음식으로 팔죽을 선택했는데, 많은 인부들의 음식을 주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팔을 갈게 되었다. 이 전통이 유지되어 두마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 되었고 팔이 지역특산물로 남았다.

#### 5. 활동 후기 (3~4줄 정도씩)

이준홍 :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계룡산이 태조 이성계가 천도하고자 하였던 곳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으며 지금껏 오랜 역사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계룡의 역사와 함께해온 음식들을 먹어보고, 이를 혼을 담은 연기와 함께 ucc로 제작하여 계룡의 역사와 맛을 홍보하는 것에서의 뿌듯함과 그 과정 속에서 친구, 선배님들과의 단합심과 단결력을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을 따뜻함으로 가득채웠기에 뜻 깊은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이혜원 : 계룡산의 퇴적된 맛과 멋을 홍보하는 것을 주제로 인문자연탐사를 수행하면서 계룡산에 얹힌 역사와 음식, 유교문화 등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계룡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소리를 직접 보고 들으며 인문학적으로 자연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인 계룡산을 더욱 아끼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영진 : 이번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알지 못했던 조선 건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내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다. 활동을 하면서 어째서 이성계는 천도를 한양으로 했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정치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유추해봤다. 유추하면서 그 당시의 역사를 더욱 자세히 느낄 수 있었고, 그 당시 인물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계룡의 음식문화도 더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 인문자연탐사의 주제가 계룡으로 고정되어 주제선정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있는 주제를 선정했다. 같이 탐사를 한 조원들과 우리를 위해 고생한 김민주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이재문 : 계룡산의 비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정말 짜릿하다. 계룡산의 맛과 멋을 홍보하기 위해 Ucc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순간, 정말 짜했으며 이번 인문자연탐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즐겁게 활동할 것 같다 확신하였다. 권~~(이름까먹)가 되어 천도지를 추천하고 때로는 sasa 방송국의 리포터가 되어 뽀뽀 났지만 매 촬영을 즐겁게 마쳤던 것 같다. 막상 영상을 보면 부끄럽겠지만 계룡산을 널리 알렸다는 성취감은 오래 갈 것 같아 기쁘다. 내 평생 기억에 남는 인문자연탐사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고의 재미를 자랑한 우리 조원들과 최고의 선생님 덕분에 알찬 2박 3일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